

現場에서서

肉鷄 밥먹고 살기 염려 없수다

- 박정삼씨 육계농장에서 -

南 斗 熙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까다로운 기술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육계 생산업은 출하적이지만 잘 선택하면 째짤한 재미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유통기능의 미비로 말미암은 년중 가격의 불안정은 생산자에게 투기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런 이유도 3~4년 육계업을 하다가는 꽤지나 비육소로 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 타자본이 들어와 재미없이 손을 털고 나가는 일도 적지 않다.

〈년중 입추 계획으로 10년동안 꾸준히 육계생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동안

꾸준히 육계를 기르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서구리의 박정삼씨는 10년전 동대문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 친척의 권유로 양계업을 시작 현재 계사 150여평 (1만 5천수 규모)에서 년중 10개월을 입추하고 있다.

2개월 후의 좋은 시세를 겨냥한 반투기의 입추가 아닌 4월말~5월초부터 익년 2월말까지 (10개월간) 한정된 시설에서 시세에 관계없이 주(週)단위로 입추를 하며, 매년 2월말 부터는 입추를 중단하고 계사를 완전히 비운 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

하며 케이지에는 에나멜을 입히고 계사벽에 페인트를 칠해 다시 년중 입추계획을 수립해 새롭게 시작한다.

초생추부터 출하시까지 3단계로 케이지사육을 실시하는 본 농장은 주 1,500수 씩 격리된 병아리육추실 (4개의 방)에 교대로 입추해 2주차에는 별도로 마련된 2단계 케이지에 옮기고 다시 24일~26일령에 격리된 100여평 성계사의 3단계 케이지에 옮겨 출하시까지 기르게 된다.

농장입구에는 계근소를 설치해 출하시는 농장주가 직접 저울로 달아서 계산서를 농장주 손으로 적어 상인에



3 단계 케이지
 < 좌로부터 1 단계, 2 단계

계 받을 가격을 요구한다.

여름철에 파리를 볼 수 없는 계사는 2일에 한번씩 꼭 계분청소를 실시하며 바닥은 물청소를 실시해 청결은 물론 계사내를 시원하게 하는 2중 효과를 본단다. 특히 계분판(케이지 밑에 계분을 받기 위해 설치한 널판지)은 하루걸러 한번씩 계분청소를 한 후 소독수에 담가 태양에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기에 위생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상품성은 균일, 상인에게 닭팔아 달라는 얘기 많해

그러나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 1978년까지는 의정부 시내에서 육계사육을 3만수 규모로 했었는데 ND(뉴켓슬)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은 후 현재 장소로 이전해 오늘까지 오고 있다.

평안남도 안주가 고향인 박정삼씨는 6·25참전용사로 사업에는 절대 욕심을 내지 않아 출하가격이 낮다고 어렵게 생각하기 보다는 「내리막길에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

다」는 희망을 갖고 1년쯤 언젠가는 오른다고 확신하며 좋은 닭을 생산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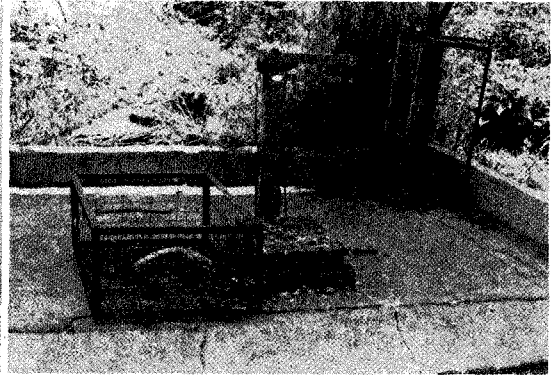
그래서 년중 출하되는 닭은 상품성이 높은 균일한 것으로 닭상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게 된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닭상인들에게는 절대 아쉬운 얘기를 하지 않으며, 특히 닭이 체화되어도 절대 닭을 빼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가격을 낮추는 일은 없다 한다. 「시장의 생리를 알아 상인과의 대화에서 결코 약점을 잡히고 앓고 꺾이지 않는 자세로 소신을 갖고 길러낸 닭 못 팔리었다는 뱃장으로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박정삼씨는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닭상인은 꼭 출입하는 몇사람만 거래하고 그들과는 지속적인 유대관계로서로 돕고 산다고 한다. 즉 물량이 체화되어도 좋은 닭을 길렀으니 아쉬운 소리 안하고, 닭이 달린다고 절대 계으름을 피지 않는 꾸준한 생산자의 한사람이다.

닭가격은 생산자가 스스로 낮춰

「공들여 길러낸 닭, 가격을 낮추는 원흉은 상인이 아니라 바로 생산자 자신」이라고 역설하며 닭이 달려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얼마를 더 받기위해 닭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상인을 기피하고 또 체화되어 가격하락의 기미만 있으면 남보다 싸게 줄테니 빼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다보니 상인들 농간에 생산자가 손해를 안볼 수 없다며 생산자는 확고한 주관을 갖고 상인과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단다. 특히 생산자는 자신뿐 아니라 상인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거래에 있어도 조건에 따라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것보다는 좀 우직할지는 모르나 한 우물 파는 것도 의미가 깊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 한다.

모든 거래방법은 확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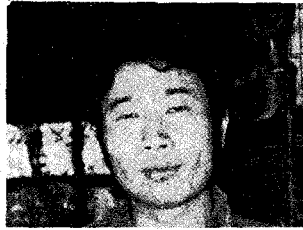
상인들과의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방법은 확



△ 병아리 육주를 위해 비어놓은 육주사(좌), 농장에 계근기를 설치해 직접 달아서 출하한다(우)

실히 해 병아리, 사료 등은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데 혹 사정에 의해 외상을 하게되는 경우 약속한 날 정확하게 계산을 처리하며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는 일부라도 결재해 거래선에서 절대 헛걸음을 하는 경우는 없다하며 사료를 한공장에서 계속 10년 동안 거래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 납품해 달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유대관계는 대단한 것이다.

양계장 관리인 남충우 (27세)씨는 군제대 후부터 계속



△ 이 농장에서 5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남충우 씨

이 양계장에만 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독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강한 정신력과 주관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종업원에 앞서 몸소 실천수범하는 박정삼씨

를 본받아 자신도 육계사업에 종사할 뜻을 밝힌다.

투기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의거, 꾸준히 생산에 몰두하여 좋은 상품가치의 닭을 생산해 내며, 판매는 남보다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육계생산의 한 우물을 10년동안 파고 있는, 배짱있고 주관이 있는 박정삼씨는 「일하는 취미가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밝히며 「육계, 밥먹고 살기에는 염려없수다」하고 강한 평안도 사투리로 힘주어 말한다.

빠르고 정확한

대한양계협회 발행 시세속보

구독문의 : 본회 지도조사부 ☎ (752) 3571~2